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 양상*

이 은 비 임 소 정 표 소 휘 김 영 제 양 은 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다차원적 진로정체감 모형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성취, 유실, 혼미, 유예, 탐색유예, 미분화)를 구분하고 지위에 따라 진로타협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은 진로정체감, 진로타협 여부, 진로타협 수준, 진로 불일치로 인한 가치 불일치를 측정하는 척도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를 사용해 K-평균 군집분석, 교차분석, 공변량 분석과 다변량 공변량 분석 및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에 앞서 참여자들은 6개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별 타협 여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군집 별 타협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미분화와 유예에 비해 성취 지위에서, 혼미에 비해 유실, 탐색유예 지위에서 낮은 타협수준을 보였다. 셋째, 군집 별 내적 가치 불일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타협으로 인한 직업 가치의 불일치를 확인한 결과, 성취 지위에서 유일하게 현재 직업 목표의 내적 가치가 이상적 직업 목표의 내적 가치보다 더 컸으며(+), 사후검증 결과, 성취에 비해 유예와 혼미 지위에서 가장 높은 내적 가치 불일치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의 각 지위에서 나타나는 타협 수준과 내적, 외적 가치의 차이 양상을 밝히며 정체감과 타협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논의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정체감 지위, 진로타협, 직업가치 불일치

*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5A2A03068974).

† 교신저자: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5, E-mail: yange@korea.ac.kr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주요한 발달 과제이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진로정체감이다(Erikson, 1968). 진로정체감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Holland, 1985),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정체감 발달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정체감 확립에 기여한다(Skorikov & Vondracek, 1998). 대한민국의 경우 대학생 시기에 보다 자율적인 결정과 책임이 부여되고 진로결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진로정체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정체감의 개념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rikson(1959)은 자아정체감을 '연속성 있는 개인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후 Marcia(1966)는 Erikson의 정체감 개념을 보다 정교화한 정체감 지위 모형(identity status model)을 제시하였다. 정체감 지위 모형은 몰입(commitment)과 탐색(exploration)의 두 차원에 근거하여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 foreclosure), 혼미(diffusion)의 네 가지 정체감 지위로 세분화하였다. 정체감 차원 중 몰입은 자신의 정체감에 자신을 맞추면서 실제 행동과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탐색은 자신이 어떤 흥미, 가치관 혹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이 때 탐색 수준이 높고 자신의 결정에 몰입하는 유형을 가장 발달 수준이 높은 성취 지위로, 탐색 수준은 높지만 결정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경우는 유예 지위로, 탐색 수준은 낮지만 결정에 몰입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유실 지위로, 탐색 수준과 몰입 수준이 둘 다 낮은 것을 혼미 지위로 정의한다. 이론적으로는 혼미 지위가 가장 낮은 발달 수준에 속하며 유실, 유예, 성취 순으로 발달이 진행된다고 제안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발달 경로가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화되었다. Luyckx., Goossens,

Soenens, Beyers & Vansteenkiste(2005)은 Marcia(1966)의 두 차원을 세분화하여, 탐색 수준을 전반적 탐색(in-breadth exploration)과 심층적 탐색(in-depth exploration)으로, 몰입 수준은 몰입 형성(commitment making)과 몰입과의 일체감(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차원의 수준에 따라 6개 정체감 지위(성취, 유실, 유예, 확산된 혼미, 낙천적 혼미, 미분화)를 제안하였다. Crocetti, Klimstra, Keijsers, Hale & Meeus(2009)는 Luyckx 등(2005)의 탐색과 몰입 차원에 더하여 몰입의 재고(reconsideration of commitment) 차원을 추가한 정체감 지위 모형을 제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의 개념도 자아정체감 연구의 진보를 반영하여 세분화된 다차원적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초기에 몰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차원(Holland, Daiger, & Power, 1980)으로 간주되었으나, Porfeli, Lee, Vondracek & Weigold(2011)은 최근 자아정체감 모형들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Porfeli 등(2011)은 전반적 탐색과 심층적 탐색으로 구분되는 탐색 차원, 몰입 형성과 몰입과의 일체감을 포함하는 몰입 차원, 진로 자기의심과 유연성으로 구성된 재고 차원을 상정하고, Marcia의 성취, 유실, 유예, 혼미 지위에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및 미분화(undifferentiated) 지위를 추가하였다. 탐색유예란 앞서 언급된 탐색 차원의 두 요인 중 전반적 진로탐색이 심층적 진로탐색보다 높고 몰입과 재고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미분화는 모든 차원에서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며 명백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속한다. VISA 모형의 탐색유예 지위는 MAMA(moratorium-achieved-moratorium-achieved) 주기를 잘 설명해 주는데, MAMA 주기란 유예와 성취 지위 간의 순환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감을 점점 더 발달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Stephen, Fraser, & Marcia, 1992). 즉 성취와 유예 지위 사

이에서 진로 결정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등 진로 재고 중인 사람들의 특징을 VISA의 탐색유예 지위가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에 대한 탐색 및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진로포부, 진로만족도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진로발달의 지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Negru-Subtirica, Pop, & Crocetti(2015)는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몰입과 진로일체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자기의심을 제시하였다. Porfeli와 Savickas(2012)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은 심층적 진로탐색과 진로일체감과 정적상관을, 진로자기의심 및 진로 유연성과 부적상관을 가진다.

특히 진로정체감은 충분한 탐색과 몰입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화, 김계현, 2011)에 따르면 유실 지위 집단은 성취 지위 집단보다 더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구체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은 성취, 유실, 탐색유예, 미분화, 유예, 혼미 순으로 높았으며 진로스트레스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진로타협이란 개인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자신의 욕구를 일부 포기하는 것

(Super, 1953)으로 진로결정의 질을 반영한다.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은 이상적으로 원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고, 결국 타협을 통해 진로목표를 조정하게 된다(Gottfredson, 1996). Gottfredson(2002)은 진로타협을 외부적인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진로포부를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정의하고, Leong(1993)은 타협과정을 진로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Gati(1993)에 따르면 진로타협을 이상적인 생각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진로의사결정이라고 말한다. 이같이 진로타협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과정이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자각하고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영은, 김경은, 2016; Creed & Blume, 2013; Creed & Hughes, 2013).

진로정체감 발달의 문제는 더 높은 수준의 진로타협과 관련될 수 있다. 목표기반이론에서는 진로타협을 이상적인 진로목표로부터 철회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목표로 재설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며(박기라, 2019; Hu, Creed, & Hood, 2017), 이 때 이상적 진로 목표와 현실적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타협수준으로 정의한다(박기라, 2019). 진로 목표의 수정은 Brandstädter와 Rothermund(2002)의 이중처리모형(dual-process framework)의 조절모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처리모형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현재 상태에 있어서 불일치가 경험될 때 어떠한 자기조절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지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자기조절과정으로 두 가지 모드(mode)를 가정하는데, 동화모드(assimilative mode)에서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관여를 기울이게 되며 조절모드(accommodative mode)에서는 개인의 자원과 제약을 고려하여 보다 새롭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동화모드에서는 목표에 대해 몰입하고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와 자원을 동원하며 목표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들은 억제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몰입, 초점화된 탐색, 낮은 수준의 재고로 특징되는 성취지위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절모드는 낮은 수준의 목표에 대한 몰입과 대안을 찾기 위한 유연성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정체감의 낮은 발달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목표에 몰입이 부족하고 진로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대안적 목표로 주의를 돌리게 되어 더 큰 수준의 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타협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진로타협 연구는 Gottfredson의 모형(1996)에 기초하여 성별, 지위, 개인적 독특성 요인들에 대한 타협 우선순위 검증에 집중해 왔다(Armstrong & Crombie, 2000; Blanchard & Lichtenberg, 2003; Wee, 2014).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타협을 진로목표의 수정이라는 목표기반 이론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진로타협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진로정체감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로정체감은 Porfeli 등(2011)이 제안한 다차원적 진로정체감 모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6개의 지위를 가정하고 이들 지위 집단에 따라 진로타협이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타협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타협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진로타협수준의 측정방식은 단일 문항으로 타협 여부를 질문하는 방식(Hesketh & McLachlan, 1991), 타협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방식(김경은, 라영안, 2015; Creed & Gagliardi, 2015), 이상적 진로목표와 현실적 진로목표에서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가치의 차이로 측정하는 방식(박기라, 김소은, 양은주, 2018; Creed & Blume, 2013)이 있

다. 각 측정방식은 진로타협의 다른 속성(타협 여부, 타협수준, 타협으로 인한 가치불일치)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측정방식의 불일치들은 혼입변인으로 작용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측정방식 자체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측정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어떤 타협 측정 방식이 진로정체감 지위에 의해 더 잘 변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수준에 따라 타협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타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가설 2,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수준에 따라 타협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타협수준을 낮게 보고할 것이다.

가설 3,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수준에 따라 타협으로 인한 가치 불일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적은 가치 불일치를 보고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다. 공고문을 읽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고문에 제시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62명

으로, 이 중 남성이 64명(24.4%), 여성이 198명(75.6%)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6명(2.3%), 2학년 65명(24.8%), 3학년 99명(37.8%), 4학년 71명(27.1%), 5학년이 8명(3.1%), 수료생이 13명(5%)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48명(18.3%), 사회계열 93명(35.5%), 자연계열 21명(8%), 공학계열 43명(16.4%), 사범계열 22명(8.4%), 의학계열 8명(3.1%), 예체능계열 17명(6.5%), 기타 10명(3.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진로정체감 지위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진로정체감 지위는 Porfeli 등(2011)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지위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를 이보라 등(2014)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척도(VISA-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재고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6가지 하위요인은 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진로 자기의심, 진로 유연성이다. 총 27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전반적 진로탐색은 '내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와 같은 문항을 질문하고, 심층적 진로탐색은 '내가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진로몰입확신 문항의 예시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나는 안다'가 있으며, 진로일체감의 문항으로는 '내가 선택한 진로의 종사자가 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가 있다. 진로 자기의심 항목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진로 유연성은 '내 직업 흥미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한국판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적일치도는 전반적 진로탐색 .70, 심층적 진로탐색 .73, 진로몰입확신 .69, 진로일체감 .74, 진로 자기의심 .81, 진로 유연성 .86이었다(이보라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진로탐색 .72, 심층적 진로탐색 .78, 진로몰입확신 .67, 진로일체감 .73, 진로 자기의심 .82, 진로 유연성 .85로 나타났다.

진로타협 여부

진로타협 여부는 Junk와 Armstrong(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적 포부와 타협에 관한 질문을 참고로 제작하였다. 먼저 현재 목표로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통계청과 노동부 워크넷 자료에 기초하여 제작된 직업목록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때 응답한 직업이 타협의 결과인지를 묻고, 만약 타협의 결과라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은 이상적인 직업 목표는 무엇인지를 추가로 질문하고 역시 직업 목록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약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면 추가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로타협 여부는 최초 응답한 목표 직업이 타협의 결과인지에 대한 질문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대학생 진로타협 척도

대학생 진로타협 척도는 김경은과 라영안(2015)이 Creed와 Gagliardi(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안하고 문항을 추가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대학생 진로타협 척도는 가치, 흥미, 지위의 세 하위요인을 반영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속성에 대해 얼마나 타협하였다고 지각하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치 문항으로는 '당신의 현재 진로 방향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비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 문항으로는 '당신의 현재 진로 방향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서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위 문항으로는 '당신의 현재 진로 방향을 생각했을 때 당신이 정말 바라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김경은과 라영란(2015)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 .91, 가치 .93, 흥미 .75, 지위 .6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적일치도는 가치 .96, 흥미 .91, 지위 .83이었다.

진로타협으로 인한 가치 불일치 척도

진로타협으로 인한 가치 불일치는 박기라 등(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치 불일치 측정을 위하여 앞서 진로타협 여부에서 질문한 현재 목표 직업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의 이상적 직업 각각에 의하여 5개의 내재적 가치(성취감, 도전의식, 책임감, 성장과 발전, 자율성)와 5개의 외재적 가치(급여, 후생복지, 근무환경, 승진기회, 고용 안정성)가 얼마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가치 항목에 대해 '현재 직업 목표의 가치점수 - 이상적 직업 목표의 가치점수'를 계산하여 차이점수를 산출하고 내재적 가치 차이점수의 평균과 외재적 가치 차이점수의 평균 각각을 산출하여 가치 불일치 점수를 계산하였다. 양(+의 점수는 현재 직업 목표의 가치가 이상적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음(-의 점수는 이상적 직업 목표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양의 점수는 타협을 통해 현실적 직업에서 특정 직업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음의 점수는 타협을 통해 현실적 직업에서 특정 가치를 포기한 정도를 의미한다. 현실적 직업과 이상적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차이점수는 0점으로 계산되었다. 박기라 등(2018)의 연구에서 2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

치도는 내적 가치 불일치 .75, 외적 가치 불일치 .78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첫째, VISA 척도 개발 연구(Porfeli et al., 2011) 및 한국판 VISA 타당화 연구(이보라 외, 2014)에서 모두 6개의 지위 군집을 지지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군집 수를 6개로 설정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집단을 구분하였다. 둘째, 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 군집 별 타협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공변량분석(ANCOVA)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에 따른 타협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공변량분석(MANCOVA)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에 따라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 가치 불일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및 진로타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Johnson, Buboltz, & Nichols, 1999; Blanchard & Lichtenberg, 2003)에 근거하여 공변량분석 및 다변량 공변량분석에서 이 두 변인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결 과

진로정체감 지위 분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참여 자들도 진로정체감 지위가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이보라 외, 2014; Porfeli et al., 2011)에서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로정체감 지위척도의 6개 하위요인의 점수를 표준화하고 6개의 군집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군집 1은 82명(31.4%), 군집 2는 65명(24.9%), 군집 3은 43명(16.5%), 군집

4는 30명(11.5%), 군집 5는 15명(5.7%), 군집 6은 27명(10.3%)으로 집단이 구분되었다.

VISA의 이론에서 제안된 지위별 특성에 따라 군집들의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평균점수를 검토한 결과, 군집 1은 특정 차원이 높거나 낮은 특징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 '미분화' 지위 특

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진로몰입 차원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며,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유예' 지위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진로몰입 점수는 평균 이상인 반면 진로탐색과 진로재고의 차원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 '유실' 지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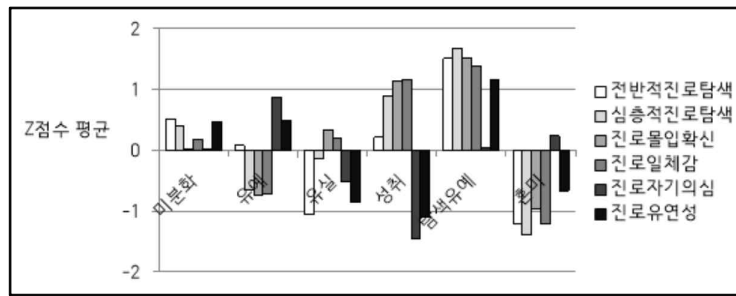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별 하위요인 특성 분석

표 1.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성별과 학년 분포

		진로정체감 지위						전체
		군집 1. 미분화 (n=82)	군집 2. 유예 (n=65)	군집 3. 유실 (n=43)	군집 4. 성취 (n=30)	군집 5. 탐색유예 (n=15)	군집 6. 혼미 (n=27)	
성별	남	18 (28.1%)	13 (20.3%)	13 (20.3%)	11 (17.2%)	5 (7.8%)	4 (6.3%)	64 (100%)
	여	64 (32.3%)	52 (26.3%)	30 (15.2%)	19 (9.6%)	10 (5.1%)	23 (11.6%)	198 (100%)
학년	1학년	2 (33.3%)	1 (16.7%)	1 (16.7%)	0 (0.0%)	0 (0.0%)	2 (33.3%)	6 (100%)
	2학년	24 (36.9%)	12 (18.5%)	6 (9.2%)	9 (13.8%)	7 (10.8%)	7 (10.8%)	65 (100%)
	3학년	33 (33.3%)	27 (27.3%)	13 (13.1%)	14 (14.1%)	1 (1.0%)	11 (1.0%)	99 (100%)
	4학년	16 (22.5%)	19 (26.8%)	20 (28.2%)	4 (5.6%)	6 (8.5%)	6 (8.5%)	71 (100%)
	5학년	3 (37.5%)	3 (37.5%)	0 (0.0%)	2 (25.0%)	0 (0.0%)	0 (0.0%)	8 (100%)
	수료	4 (30.8%)	3 (23.1%)	3 (23.1%)	1 (7.7%)	1 (7.7%)	1 (7.7%)	13 (100%)

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진로탐색과 몰입 차원의 점수가 평균 이상이며 반면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군집 5는 진로탐색과 몰입이 모두 상승했을 뿐 아니라 진로재고 중 진로 유연성이 함께 높게 나타나 '탐색유예' 지위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6은 진로탐색 차원과 진로 몰입 차원이 모두 낮고 진로재고 차원 중 자기 의심은 높고 유연성은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혼미'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그림 1).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성별과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성취 지위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혼미 지위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2, 3 4학년이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4학년들의 경우 2, 3학년에 비해 유실 지위의 비율이 높고 성취 지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 여부 차이

VISA 이론에 따라 나누어진 6개의 지위 간에 타협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체감 지위들 중 진로를 타협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성취 지위로, 성취 지위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33%만이 타협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탐색유예 지위에서 46%, 유실 지위에서 48%, 미분

화 지위에서 51%, 혼미 지위에서 55%가 타협을 했다고 보고하여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타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유예 지위로, 66%가 타협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타협 여부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군집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 = .08, df = 5, p > .05$).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수준의 차이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보고하는 진로타협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위 간 진로타협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 256) = 15.94, p < .001$). 추가적으로 사후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취 지위 집단이 탐색유예 지위 집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낮은 타협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혼미 지위 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높은 타협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실 지위와 미분화 지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유예 지위 집단보다 낮은 타협 수준을 보고하였다.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으로 인한 가치 불일치의 차이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타협으

표 2.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 여부

지표	군집	예	아니오	군집내 타협비율	χ^2
타협 여부	군집 1. 미분화 (n=82)	42	40	55%	.08
	군집 2. 유예 (n=65)	43	22	66%	
	군집 3. 유실 (n=43)	21	22	48%	
	군집 4. 성취 (n=30)	10	20	33%	
	군집 5. 탐색유예 (n=15)	7	8	46%	
	군집 6. 혼미 (n=27)	15	12	55%	

표 3.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수준

지표	군집	M	SD	F	partial η^2	사후검증 (Bonferroni)
진로 타협 수준	군집 1. 미분화 (n=82)	2.09	0.72	15.80***	.24	성취 < 유실, 미분화, 유예, 혼미 탐색유예 < 혼미 유실 < 유예, 혼미 미분화 < 유예, 혼미 유예 < 혼미
	군집 2. 유예 (n=65)	2.47	0.66			
	군집 3. 유실 (n=43)	1.95	0.63			
	군집 4. 성취 (n=30)	1.39	0.36			
	군집 5. 탐색유예 (n=15)	1.89	1.01			
	군집 6. 혼미 (n=27)	2.74	0.70			

*** $p < .001$

로 인한 직업 가치의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현재 직업 목표와 이상적 직업 목표에 대한 내적 직업 가치 불일치 점수와 외적 직업 가치 불일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MANCOVA를 실시하기에 앞서 Box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illai's Trace를 다변량 검증의 준거로 사용하였다(Olson,

1979). 분석 결과, 지위 군집들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illai's $T = .08$, $F(10, 508) = 2.00$, $p < .05$), 각 종속변인에 대한 ANCOVA가 후속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ANCOVA 결과(표 4), 유의한 차이는 내적 직업 가치 불일치에서만 발견되었다($F(5, 254) = 3.57$, $p < .01$). 구체적으로 혼미 집단의 내적 가치 불일치 점수가 -.36, 유예 집단은 -.33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표 4.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불일치 수준

지표	군집	M	SD	사후검증 (Bonferroni)
타협으로 인한 내적가치 불일치	군집 1. 미분화 (n=82)	-0.05	0.62	성취 > 유예 성취 > 혼미
	군집 2. 유예 (n=65)	-0.33	0.67	
	군집 3. 유실 (n=43)	-0.17	0.41	
	군집 4. 성취 (n=30)	0.16	0.61	
	군집 5. 탐색유예 (n=15)	-0.09	0.28	
	군집 6. 혼미 (n=27)	-0.36	0.79	
타협으로 인한 외적가치 불일치	군집 1. 미분화 (n=82)	0.19	0.75	-
	군집 2. 유예 (n=65)	0.31	0.91	
	군집 3. 유실 (n=43)	0.27	0.65	
	군집 4. 성취 (n=30)	0.39	0.87	
	군집 5. 탐색유예 (n=15)	0.19	0.53	
	군집 6. 혼미 (n=27)	0.28	0.73	

더 큰 현실적 직업과 이상적 직업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이들 집단이 성취 지위 집단보다 유의하게 큰 불일치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적 가치 불일치의 경우 ANCOVA 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아 지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선 분석에서 내적 직업 가치 불일치에서만 정체성 지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각각의 내적 직업 가치 불일치 항목들 중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정체성 지위에 따라 성취감, 도전의식, 책임감, 성장과 발전, 자율성의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직업 가치 불일치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성취감($F(5, 254) = 2.48, p < .05$), 도전($F(5, 254) = 3.61, p < .01$), 성장($F(5, 254) = 2.55, p < .05$)의 세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전에 있어서만 혼미($M = -0.56, SD = 1.05$)와 유예($M = -0.57, SD = 0.98$) 지위 집단이 성취 지위 집단($M = 0.27, SD = 0.69$)보다 유의하게 큰 수준의 불일치를 보고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어떠한 진로타협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타협을 타협 여부, 타협 수준, 현재 진로 목표와 이상적 진로 목표의 내외적 직업 가치의 불일치와 같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진로타협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취 지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지위에 비해 더 낮은 타협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현재 진로 목표와 이상적 진로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적 직업 가치의 타협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혼미 지위와 유예 지위의 경

우 상대적으로 높은 타협 수준과 내적 직업 가치의 타협을 보고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에 따라 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Porfeli 등(2011)과 이보라 등(2014)이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미분화(Undifferentiated), 혼미(Diffused),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ed), 탐색유예(Searching Moratorium), 성취(Achieved)의 6개 진로정체감 지위 구분이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미분화 지위에 속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유예, 유실, 성취, 혼미, 탐색유예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이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선행연구들(이보라 등, 2014; Porfeli et al, 2011)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단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혼미 지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Porfeli 등(2011)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보라 등(2014)은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했다는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위 집단별로 성별과 학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취 지위에 속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들이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더 높은 유실 지위 빈도와 더 낮은 성취 지위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체감 수준도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오보영, 이상희, 2013)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크지 않고 군집 분석의 결과는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 역시 각기 다른 지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김유리, 이계경, 2016; 오보영, 이상희, 2013; 이상희, 심희준, 2014; 정지후, 이상희, 2014)는 점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다양한 진로타협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타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지표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단일 질문을 사용하여 진로타협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응답하게 한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지위에 있어서 타협을 한 비율은 50%를 중심으로 45%~55% 사이로 나타났다. 다만 성취 지위의 경우 3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의 타협을 보고하였으며, 반면 유예 집단의 경우 66%로 높은 빈도의 타협을 보고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양상은 진로정체감 지위들이 가지는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타협의 수준에서는 보다 명확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취 지위 집단은 가장 적게 타협하며, 탐색유예 지위 집단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혼미 지위 집단은 유예 지위 집단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집단들보다 큰 수준의 타협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타협의 수준에 있어서 몰입과 탐색 차원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몰입 차원이 중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진로 몰입은 진로 목표에 대해 심리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이보라 외, 2014; Marcia, 1966), 이는 Brandstädter와 Rothermund(2002)가 제안한 이중처리모형의 동화모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진로 목표에 대한 깊은 관여 및 결정은 목표 추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을 고려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목표를 유지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가장 높은 타협 수준을 보인 혼미 군집과 유예 군집은 공통적으로 진로 목표에 대한 낮은 몰입과 높은 재고를 반영한다. 이는 이중처리모형의 조절모드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한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보다 대안적이고 새로운 목표로 주의를 돌리게 됨으로써 보다 쉽게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심리

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몰입 차원은 타협에 대한 저항력을 반영하며, 몰입이 부재한 조건에서의 탐색과 재고는 더 큰 수준의 타협을 지각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타협을 현재 진로목표와 이상적 진로목표를 통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는 직업 가치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내적 직업 가치의 불일치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외적 직업 가치의 불일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내적 가치 중에서도 도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앞서 기술한 진로타협 수준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내적 가치 불일치는 성취 지위 집단과 혼미 및 유예 지위 집단 사이에서 나타났다. 혼미와 유예 지위 집단의 경우 타협한 현실적 직업이 이상적 직업보다 내적 가치들, 특히 도전의 가치를 덜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낮은 몰입과 높은 재고 수준을 가진 개인들은 진로 목표의 수정 과정에서 특히 내적 가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진로정체감과 직업 가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우나,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정체감과 물질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다.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몰입차원이 낮은 불확실한 정체감이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이 물질주의 가치와 같은 외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내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연구의 몇 가지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본 연구는 진로라는 맥락에서 정체감과 직업 가치의 타협을 살펴보았으며, 박선웅과 박예린(2019)은 전반적인 정체감과 가치의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를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본 반면, 박선

응과 박예린(2019)은 전체 가치에서 물질주의적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을 단일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지위를,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정체감의 몰입 차원만을 고려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진로발달의 맥락과 구인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가 이러한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타협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발달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성취 지위의 대학생들이 다른 지위, 특히 흥미나 유예 지위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진로타협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타협 여부를 질문하는 이분법적 측정방식보다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타협의 수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정체감이 타협 여부 자체보다는 타협 수준의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타협에 있어서 이상적인 진로 포부와 현실적인 진로 목표의 불일치가 클수록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고려할 때(김경은, 라영안, 2015; Creed & Gagliardi, 2015), 이러한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타협 수준의 차이는 적응적인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타협으로 인한 내적 직업 가치의 불일치에 차이가 나타나나, 외적 직업 가치 불일치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내적 가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차이는 도전이라는 가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긍정적 정체성과 진로 목표를 통한 도전적 가치의 추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기술한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타협의 수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협을 하더라도 내적인 직업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적 직업가치는 외적 가치보다 진로 발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Hirschi, 2010), 타협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적 직업가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긍정적인 진로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할 때, 진로정체감은 타협의 수준과 질 모두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타협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개입에 있어서 충분한 몰입과 탐색을 제공하여 진로정체감을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진로정체감 발달의 문제가 타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타협으로 인해 정체감 발달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은 개인이 자신의 믿음이나 태도가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감을 느껴 이러한 모순을 감소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진로타협과 정체감의 관계에 적용하면, 타협을 함으로써 진로 목표를 수정한 개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몰입과 동일시를 낮게 지각할 수 있다. 특히 내적 가치는 외적 가치보다 더 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irschi, 2010), 정체감과 같은 자기개념이 관련된 경우 인지부조화가 더 강하게 경험되기 때문에(Harmon-Jones & Mills, 1999), 타협이 내적 가치의 영역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합리화가 더욱 강화되고 정체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로 진로정체감과 진로타협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과 진로타협의 관계는 양방향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서로에게 피드백으로 작용하여 호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설계를 사용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표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대한민국 대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만이 아닌 고등학생이나 일반인과 같이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켜 표본을 확대하면 여러 발달 단계에서 진로정체감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표본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정체감 지위 집단들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은 탐색유예로, 그 다음으로 작은 표본 크기를 가진 혼미 집단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이러한 지위 집단에 따른 표본 크기의 차이는 기존 선행연구(Porfeli et al., 201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대규모의 표본을 사용하여 유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점을 가진다. 첫째,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진로타협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중처리모형(Brandtstädter & Rothermund, 2002)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기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기존의 진로타협 연구들은 대부분 Gottfredson(1996)과 같은 진로영역에 특화된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이중처리모형을 사용하여 보다 일반적인 목표기반이론으로 타협과 정체감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진로타협을 이해하는 대안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진로타협을 타협 여부, 타협 수준, 이상적 직업과 현실적 직업의 가치 불일치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측정 방식에 따른 차별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이후 진로 타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진로 타협을 다루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진로정체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진로정체감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낮은 수준의 진로 몰입이 높은 수준의 재고와 공존할 때 이상적 직업과 현실적 직업의 괴리를 가장 크게 지각하며 특히 타협이 내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통해 목표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전략은 선부른 타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과 같은 다양한 진로행동들과 더불어 진로 타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저자 소개

이은비는 인디애나 대학교-블루밍턴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관심주제는 진로상담과 다문화 및 소수자 연구이다.

임소정은 고려대학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및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동대학교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주제는 진로상담이다.

표소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원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관심 연구주제는 진로상담이다.

김영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세종대학교 시간제 상담사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주제는 진로발달과 트라우마이다.

양은주는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와 상담심리학 석사를,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진로발달과 다문화주

의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 라영안 (2015). 대학생 진로타협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03-121.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화,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 169-182.
- 김유리, 이제경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K)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331-356.
- 라영안, 김경은 (2016). 대학생 진로타협과 진로스트레스와의 관계: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4), 185-203.
- 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스트레스: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3), 233-255.
- 박기라 (2019). 진로타협 유형에 따른 진로목표 적응 차이의 종단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기라, 김소은, 양은주 (2018). 한국판 대학생 진로타협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155-175.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감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 오보영, 이상희 (2013).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자아존중감, 우울 및 대학적응의 차이: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6(1), 47-67.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상희, 심희준 (2014). 진로정체감 유예 지위에 대한 고찰: 적응적 유예와 비적응적 유예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22(1), 71-91.
- 정지후, 이상희 (2014). 진로정체감 6개 단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 진로신념, 우연기술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7(1), 151-170.
- Blanchard, C. A., & Lichtenberg, J. W.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250-271. doi:10.1016/s0001-8791(02)00026-x
- Brandstädter, J., & Rothermund, K. (2002). The life-course dynamics of goal pursuit and goal adjustment: A two-process framework. *Developmental Review*, 22(1), 117-150.
- Creed, P. A., & Blume, K. (2013). Compromise, well-being, and action behaviors in young adults in career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3-19. doi:10.1177/1069072712453830
- Creed, P. A., & Gagliardi, R. E. (2015). Career compromise, career distress, and perceptions of employability: The moderating roles of social capital and core self-evalu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20-34. doi:10.1177/1069072714523082
- Creed, P. A., & Hughes, T. (2013).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as moderators betwee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outcomes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2), 146-163. doi:10.1177/0894845312437207
- Crocetti, E., Klimstra, T., Keijsers, L., Hale, W. W., & Meeus, W. (2009). Anxiety trajectories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five-wave

-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6), 839-849. doi:10.1007/s10964-008-9302-y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doi:10.1037/0022-0167.40.4.416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approaches to practice* (3rd ed., pp. 179-23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ottfredson, L. S.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 Associate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85-14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rmon-Jones, E., & Mills, J. (1999).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dissonance theory and an overview of current perspectives on the theory. In E. Harmon-Jones & M. Judson (Eds.), *Cognitive dissonance: Progress on a pivotal theory in social psychology: Science conference series* (pp. 3-2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sketh, B., & McLachlan, K. (1991). Career compromise and adjustment among graduates in the banking industr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19(2), 191-208. doi:10.1080/03069889108253602
- Hirschi, A. (2010). Positiv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role of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 276-287. doi:10.1002/j.2161-0045.2010.tb00193.x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u, S., Creed, P. A., & Hood, M. (2017). Career goal revision in response to negative feedback: Testing a longitudinal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3), 335-345.
- Johnson, P., Buboltz, W. C., & Nichols, C. N. (1999). Parental divorce, family functioning, and vocational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2), 137-146. doi:10.1177/089484539902600204
- Junk, K. E., & Armstrong, P. I. (2010). Stability of career aspirations: A longitudinal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7(3), 579-598. doi:10.1177/0894845309350921
- Leu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 doi:10.1037//0022-0167.40.2.188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Beyers, W., & Vansteenkiste, M. (2005). Identity statuses based on 4 rather than 2 identity dimensions: Extending and refining Marcia's paradig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05-618. doi:10.1007/s10964-005-8949-x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doi:10.1037/h0023281
- Negru-Subtirica, O., Pop, E. I., & Crocetti, E.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 vocational identity: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31-142. doi:10.1016/j.jvb.2015.03.004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doi:10.1016/j.adolescence.2011.02.001
-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48-753. doi:10.1016/j.jvb.2012.01.009
- Skorikov, V., & Vondracek, F. W.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1), 13-35. doi:10.1177/106907279800600102
- Stephen, J., Fraser, E., & Marcia, J. E. (1992). Moratorium-achievement (Mama) cycles in lifespan identity development: Value orientations and reasoning system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83-300. doi:10.1016/0140-1971(92)90031-y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doi:10.1037/h0056046

1 차원고접수 : 2019. 11. 06.

수정원고접수 : 2020. 02. 21.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9.

Vocational Identity Status and Career Compromise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Eunbi Lee Sojeong Im Sohwi Pyo Youngjae Kim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multidimensional vocational identity model to classify college students into six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achievement, moratorium, searching moratorium, foreclosure, diffusion, and undifferentiated) and investigated how career compromise patterns differ among the statuses. Participant were asked to respond to self-report measures that assess the vocational identity, the status of career compromise, the level of career compromise, and the value discrepancies between ideal and present career goal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for k-means cluster analysis, chi-square test,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 and Bonferroni post-hoc test. Prior to the main analyse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six vocational identity status groups based on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career compromis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identity status groups. Second, the level of career compromi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identity status groups. Post-hoc analyses showed that the level of career compromise of the achievement status was lower than that of undifferentiated and moratorium statuses, and career compromise level of foreclosure, searching moratorium statuses was lower than that of diffusion. Third, group differences of internal value discrepancy were found significant. The results of discrepancies in career values showed that the achievement status was the only status with the internal values of present career goals higher than that of ideal career goals (+), while moratorium and undifferentiated statuses had the highest internal value discrepancy scores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values among identity statuses, while looking at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compromise as multidimensional factor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scussion of possible future research are proposed.

Keywords: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career compromise, career value discrepancy